

정규 교육과정화 시작한 초·중고 미디어교육, 영상제작교육 부실화 우려

올 해 일부 고교 정규교과 편성하기도, 미디어교육 '미디어 리터러시'에 편중, 영상을 언어로 사용하는 시대, 학생들의 교육수요에 미달

교육부가 2024년부터 각 급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든 교과와 연계해 수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미디어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화 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4일 내놓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생태전환교육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그동안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반영했던 교육 과정을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 학기 활동 등 비교과 활동과 연계해 참여·체험 중심의 수업과 자치활동은 강화하겠다는 게 교육부 구상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이러한 내용의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하고, 2024년부터 초·중·고등학교 1~2

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할 방침이다. 모든 교과와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덕성여고는 2020년 2학기에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목 신설을 승인받았다. 덕성여고 박한철 교사는 해당 교과서 개발에 대표 저자로 참여해 교육청의 인정 도서로 최종 승인받았고, 덕성여고는 지난해부터 '청소년과 미디어'를 교양교과군 진로선택과목으로 편

제, 주당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교사는 올해 1월 웹진 '미디어 리터러시'에 기고한 글에서 "전에는 정규 교과목 편성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재들을 창체 시간에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청소년과 미디어' 과목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해 가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2월 내놓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계획'에서 주체 중심 프로젝트 수업과 함께 고교 학점제와 연계하여 미디어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권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교육부의 미디어 교육 방침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다 보니, 영상 부문에 대한 이해나 제작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실



▲현재 초·중·고교를 대상으로한 미디어교육 장면, 우측상영미디어센터 제공

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계한 미디어교육팀은 "언론진흥재단에서 각 학교에 미디어 강사를 파견하면서 기존 강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요즘엔 학생들이 영상 제작 실습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수 교육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이 단순한 수용자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산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표현하는 사회참여 활동 확대를 통한 '생산자' 교육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미디어 활용으로 책

임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임병길 우측상영미디어센터 이사는 "영상은 요즘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라며 "아이들이 소통의 도구로서 영상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cal1006@naver.com -> 3면에 기사 이어짐

2022힌즈페터국제보도상 국제공모, 심사 마쳐

'힌즈페터국제보도상, 민주주의, 언론자유를 위한 영상기자의 중요한 역할 보여줘'
9월 6일, 대상 '기로에선 세계상' 등 4개 부문 수상자 공식발표
10월 27일 광주에서 시상식, '수상작 전시회' 등 다양한 연관 행사들 예정



▲지난 8월 25일 진행된 2022 힌즈페터국제보도상 경쟁부문 최종심사회의 장면


민주주의, 인권, 평화, 언론자유를 위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 세계 곳곳의 또 다른 힌즈페터 영상기자를 찾아 시상하는 '2022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의 국제공모와 경쟁부문 작품심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 제2회 국제공모는 전 세계 12개국에서 CNN, 일본TBS, 호주ABC, 싱가포르CNA, 영국 더 가이언(The Guardian), 독일 DW, 글로벌 온라인보도채널 VICE NEWS 등의 해외언론사, KBS, SBS 등의 국내방송사 등에 소속된 영상기자들이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이 자신이 취재, 보도한 뉴스와 특집기획보도 작품들을 출품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쟁 부문 공모작들에 대한 1차 온라인심사가 진행되었고, 뉴스 부문 2개 작품, 특집 부문 6개 작품 등 총 8개 작품이 '파이널8' 최종심사 후보작으로 확정되어 8월13일부터 25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최종 심사가 이루어졌다.

한국시간 8월 25일 밤 9시, 온라인으로 개최된 최종심사회의는 심사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들루아르(Christophe Deloire)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의 주재로 국내외의 저명한 영상기자, 저널리스트, 언론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종 심사위원회의 토론과 투표가 거쳐, 대상인 '기로에선 세계상(The World at a Crossroads Award)', '뉴스상(Award for News)', '특집상(Award for Features)'의 수상자를 결정했다.

최종심사회의에 앞서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심사위원장은 "이번 힌즈페터국제보도상 국제공모의 출품작 모두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한국 영상기자들과 언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있어서 빠른 발전을 해왔고, 180여 개 나라들 중 상위의 언론자유지수를 가질 만큼 민주주의에 있어서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홍보성 영상, 외국영상이 범람하는 시대에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영상기자와 영상저널리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상기자는 사무실에서 프로듀싱하거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뉴스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하고 있다.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상기자가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가장 먼저 사건의 현장을 탐사,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한국이 민주주의, 언론자유를 발전시킨 경험과 역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역할해 주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경쟁부문 공로상인 '오월광주상(May Gwangju Award)' 수상자는 '2022힌즈페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the Hinzpeter Awards Organizing Committee)'의 공적조사를 통해 후보로 확정된 해외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공적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고, 9월 초 '오월

광주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2힌즈페터국제보도상 경쟁부문, 비경쟁부문 수상자들에 대한 공식발표는 오는 9월 6일(화) 광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수상자와 수상작들, '파이널8'에 오른 영상기자와 작품들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광주 에이스페어(ACE-FAIR)'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힌즈페터국제보도상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힌즈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전체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후원하는 '2022힌즈페터국제보도상'의 시상식은 출수 해는 서울, 짝수 해는 광주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한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올 해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린다. 이번 시상식에는 '5.18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장소에서 제2회 수상자들과 전년도 수상자, 심사위원 등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 언론자유를 위한 영상저널리스트의 역할과 연대의 방법을 모색하는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다.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민생을 따뜻하게
경기를 활기차게

코로나19, 물가 상승,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제조·수출기업,
농·어업인 및 축산인을

경기도가 든든히 응원합니다.

경기도 비상경제 대책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모색하는 영상기자의 발전’ 주제로

지난 7월, ‘데스크-지부(회)장 연수’, ‘전국회원 연수’ 개최

협회현안공유,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자 제작기발표, 온라인콘텐츠 성공법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데스크-지부(회)장 연수’ (부산 펠릭스 바이 에스티엑스 호텔)와 같은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회원 연수’ (부산 베스테웨스턴 플러스 송도호텔)를 각각 개최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전국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해, ‘함께 모색하는 영상기자의 발전’을 주제로, 보도영상의 발전과 영상기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들과 장비사들이 참여한 장비전시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UHD시대 ENG의 미래와 MNG의 발전’에 대한 주제 놓고 영상기자들과 장비사 담당자들의 연구보고, 개발방향과 현황에 대해 발표 및 의견교류도

이번 연수들에서는 ‘협회원 풀원칙 강화’, ‘미디어교육 분야의 협회원 진출 및 지원방안’, ‘협회법인화’와 같은 다양한 협회 현안을 회장단과 회원들이 직접 소통하며, 의견 나누었다. 또, ‘ENG카메라의 미래와 MNG의 발전’을 주제로 권혁용(MBC), 김병수(충북MBC), 김



남성(SBS) 회원으로 구성된 ENG연구팀과 이영석(OBS), 이우진(MBN), 박장빈(KBS)회원이 함께 한 MNG연구팀이 UHD시대 영상취재 장비 선택을 위한 현장과 방송사의 고민, 영상기자들이 본 ENG카메라의 발전방향과 MNG장비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각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영상기자연구팀의 발표 후에는 소니, 파나소닉 등의 카메라제조사와 방송용 카메라렌즈와 미러리스 카메라장비 개발사인 캐논, MNG 장비사인 TVU와 LIVE-U의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 본인들이 추구하는 UHD용 취재장비와 라이브송신

장비의 개발방향과 현황들에 대해 발표하고, 참여한 회원들과 이에 대한 궁금증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소니, 파나소닉, 캐논, TVU, LIVE-U 등의 장비사 참여한 현장시연회 호평

연수교육장 밖에는 장비사들이 자사가 시판하고 있는 장비들을 직접 사용해 보고, 전문가들과 상담해 볼 수 있는 장비시연회가 열렸는데, 이에 대한 참가회원들의 호응도 컸다. 특히, 대형방송장비전시회에서는 보도영상용 장비에 특화된 전시나 장비업체의 구체적 설명이나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한 장소에서 취재장비들에 대한 시연과 상담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 호평이 이어졌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저자들, 한국영상기자상 대상수상기, 영상기자출신 온라인콘텐츠 제작자의 성공기 직접 만나 영상저널리즘 역량강화

이번 연수들에서는 지난 2019년 협회가 제정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의 공저자를 맡은 이승선 총남대 교수와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제정 3년, 현장의 변화’를 주제로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제정, 보급 이후 일어난 보도영

상의 변화와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또, 제35회 한국영상기자상 대상 수상자인 KCTV제주방송의 김용민 기자가 수상작인 ‘활랑바당’의 제작기를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고, 2천명 구독자에서 4년 만에 153만명 온라인구독자채널로 발전시킨 MBC온라인채널 ‘14F’의 손재일 부장(MBC영상기자)이 강사로 나와 온라인콘텐츠의 성공비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담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허은지 tvnews@tvnews

MBC 뉴스영상국, 뉴스영상편집 ‘블러처리기준’ 마련...

협회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의 현장화 환경, 개정작업에 적극 반영키로

MBC뉴스영상국이 뉴스영상 편집과 관련해 ‘블러 처리 기준’을 제정했다. 방송사 내부에서 실무진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가이드라인 작업을 총괄한 이세훈 MBC뉴스영상편집부장은 “지난 6월 열린 전국 보도영상 책임자 대표회의에서 MBC 뉴스영상 편집의 통일성과 관련해 블러처리, 영상 출처 등에 대한 달라진 기준을 설명했는데, 논의 끝에 ‘서울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다.”며 “여러 차례 편집회의를 거쳐 지난 7월 규정을 마련했고, 8월 16일 개정안을 공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MBC의 ‘블러처리기준’은 “원칙 없는 블러 처리는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훼손해 저널리즘 규범

에 어긋난다.”며 △블러 처리가 필요한 부분만 확실하게 가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화면 전체를 블러 처리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블러처리기준’ 마련에 앞서 가이드라인 제정팀이 검토한 MBC 자체 가이드라인은 뉴스 편집과 관련해 선언적 내용이 많은 반면 구체적인 사안별로 권고 사항을 정리해 둔 게 없었고, 협회 의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은 판례와 방식위 결정을 중심으로 기술돼 있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급변하는 상황들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이 부장은 “그동안 실무자들은 전쟁이나 테러 관련 보도의 사진, 인과, 건물 등의 블러 처리 여부를 놓고 건건이 부장이나 데스크한테 물어봤어야 했다.”며 “기준이 마련된 뒤 기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집 작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문의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외부 영상 출처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MBC는 그동안 시청에 방해가 된다거나 MBC 로고를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외신, 유튜브, 조선중앙TV 로고를 블러 처리해 왔다. 이 부장은 “외신 영상은 MBC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건데 관행적으로 로고를 가림으로써 왠지 부정하게 갖다 쓰는 느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시청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원저작자가 삽입한 위치의 워터마크를 노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기준에는 MBC가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를 기준으로 경우에 따라 블러 농도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까지 실무지침서 제시되어 있어 편집자



임장에서 참고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은 “편집 실무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편집 문법과 편집 실무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 내용들이 포함된 ‘MBC 뉴스영상편집 가이드라인(가칭)’을 빠르면 9월 말까지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협회가 제정, 보급중인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이 영상취재, 보도 전반의 판단

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꼭 맞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과 업무의 성격에 맞게 세분화한 가이드라인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영상보도가이드라인>개정작업에 MBC ‘블러처리기준’과 같은 다양한 현장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줄 예정이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협회, 2022 시니어 영상기자 연수 실시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중구 정동빌딩에서 ‘2022 시니어 영상기자 연수’를 실시한다. 시니어 영상기자들의 ‘인생 2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로 마련된 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50세(1973년생) 이상 협회원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진행될 이번 연수는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 진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경력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생애 경력 설계 교육 △후배들과의 소통,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퇴직 이후 삶에 대한 고민 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마음 치료 △은퇴 이후 다양한 사회활동을 벌

이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 등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정부의 미디어터러시 교육 강화 방침에 발맞춰 시니어 영상기자들이 미디어교육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어떻게 전문성과 경험을 키우고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나준영 회장은 “50세 이상 시니어 영상기자들이 시니어기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슬기롭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퇴직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인생 설계 전문가, 시니어기를 먼저 경험한 선배들과 함께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를 고민하고 계획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2022 힌즈페터국제보도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

최종심사위원

마리오 슈미트, 독일 ARD방송 시사국장

아메드 아사르, 로이터통신 아시아태평양 영상 사진부문 에디터,

샤론 루블, 알자지라TV 아시아태평양 다큐총괄 에디터

오타 유키히로, 일본TBS와신부장

서태경, 한국영상기자상 심사위원장

이재익, 5.18기념재단 선임 연구원

채영길, 외대교수 겸 민연련 공동대표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1차 심사위원

팀서록, 워싱턴 DC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타케하루 와타리, 일본 아사아프레스 소속 비디오팀리스트

브루노 페데리코, 1회 대회 특집 부문 수상자

김영미, 국제 분쟁 전문 PD, Docu and News Korea 대표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교수, 前 5.18기념재단 이사

박형실, 아리랑TV 제작센터장

김우철, 前MBC 영상기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

홍문기,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상호, 철학 박사, 기록유산 전문가

이승용, MBC 선임기자실장

김승재, YTN 선임기자, 작가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기자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발행 · 편집인 | 나준영
편집위원 | 김용민, 김재욱, 김준모, 김현기, 김현석, 김형수, 박태범, 양재혁, 양현철, 유종현, 이지호, 이한범, 장영근, 전상범, 정종배, 현세진, 황종원
취재기자 | 안경숙, 오주아 **행정** | 허은지 **제작** | 미디어이

1999년 4월 23일 창간
 2019년 8월 19일 등록번호 양천, 마00009(격월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tvnews.or.kr
 팩스 : 02) 3219-6478 / 전화 : 02) 3219-6476-7

한국영상기자협회
 우)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Video Journalists The Eyes of Truth

힌즈페터국제보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고 진전시키기 위해 역사의 기록자로서 진실을 담아 세상에 알리고자 부투하는 영상기자들과 언론인들을 위한 상입니다.

2022 힌즈페터국제보도상

09.06(화) 오후 2시 수상작 발표 기자회견 장소: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	9.22(목)~25(일) 수상작 최초 공개 전시회 (공동주최: 한국전파진흥협회) 장소: 광주ACE-FAIR(김대중컨벤션센터)	10.27(목) 오후 6시 시상식 장소: 광주 옛 전남도청 주변
---	--	---

특별행사 >>

수상자들과의 만남 1 <영상으로 연대하는 세계, 한국 저널리스트들의 고민과 역할> 세미나 ▶ 국내 방송, 언론인 및 학자, 전문가들과의 만남 (장소: 서울시)	수상자들과의 만남 2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바꾼다-영상으로 전하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진실> ▶ 영상기자협회원, 예비언론인들과의 만남 (장소: 광주광역시)	수상작 전시회 장소: 서울시, 광주광역시
---	--	----------------------------------

사진 제공: 박태홍(전 한국일보 사진기자)
 주최 한국영상기자협회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후원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

영상기자를 비롯한 시니어방송언론인들 미디어교육 분야로의 진출 고민해야

청소년, 성인 대상 다양한 영상표현, 제작 교육, 영상윤리교육 필요 협회, 영상중심 미디어교육 위한 교재개발, 교수법 연수 모색

언론계에서는 미디어 교육 확대를 앞두고 언론인들이 퇴직 이후 미디어교육 전문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를 통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과, 협력기관과 연계해 미디어 교육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존 미디어 교육도 언론진흥재단이 학교,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미디어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확대되면서 현직 교사들이 교육을 맡을지, 외부 강사를 통해 협력수업을 할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미디어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협력 시스템은 기본

적으로 유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영상 취재에 전문화된 영상기자가 미디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론은 물론 기획부터 편집까지 콘텐츠 제작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과 교수법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장혜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사업팀장은 “연초에 미디어 교육 관련 과정이 공개되면 지원서와 함께 교육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뉴스영상 제작을 특화한 프로그램보다는 콘텐츠 제작이나 리터러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리터러시 분야는 이론을 영상 제작 분야는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 마무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이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은 수강생 연령대가 유

여러 대상을 다 아우르지는 못하더라도 특정 대상을 상대로 수업을 전달할 수 있는 스킬이나 교수법 등은 본인이 어느 정도 개발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상기자협회 나준영 회장은 “시니어 영상기자들이 미디어 분야에서 영상 제작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미디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영상의 촬영과 편집, 영상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의 역량을 키우고, 영상의 제작윤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해와 감성을 일깨워, 영상을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는 시대에 영상기자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미디어교육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심 있는 영상기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인터뷰] 은퇴 후 영상·미디어 강사로 활동하는 임병길 우뚝성영상미디어센터 이사장

"영상·미디어교육 분야 활성화될 듯...영상기자들 현장촬영, 제작경험 바탕해 미디어이론·교수법 갖추면 진로 밝아"

은퇴(隱退).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낸다.'는 뜻이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은퇴'가 필요하다. 30년 넘게 해 온 일을 기반으로 도전한다면, 완전히 생소한 분야에 뛰어드는 것보다 덜 불안할 수 있다. 퇴직한 선배들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방송사를 선택하고 사회작업동조화 우뚝성영상미디어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병길 이사장을 지난 23일 전화 인터뷰했다.

- 퇴직 이후 영상전문가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원래 사진 전공이라 MBC를 퇴직한 2014년부터 1년 정도는 작품 사진을 찍고 다녔다. 그런데 여주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을 가르치는 강사라면서 연락이 왔다. 영상 쪽으로 가르쳐보고 싶었는데 경험이 없어 아는 사람을 통해 나를 소개받았다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에 대한 강의를 해 줄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 일을 계기로 2015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지방은 서울과는 달리 문화시설이 적고, 미디어와 관련된 기관들도 별로 없다. 아이들이 미디어에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 영상 제작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조금 안다고 하는 친구들도 체계가 없고, 유튜브나 친구한테 들어서 하는 수준이어서 많이 안타까웠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했다.

“경기도 꿈의학교에서 영상·미디어 관련된 강의를 맡아 1년 동안 일했다. 꿈의학교 활동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여주시에서 하는 마을지자단, 삼성꿈장학재단의 영상기자단 교육도 맡게 됐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 영상기자단을 교육했는데 영상 제작, 기사 작성법, 인터뷰하는 법은 물론 드론, 편집까지 강의해서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게 했다.”

- 지금 우뚝성영상미디어센터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계신데.

“여주 지역에서 영상 관련 강의를 하면서 이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계속 고민했다. 세종문화재단, 여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등과 얘기하다 미디어와 관련된 사회작업동조화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게 되었다. 2019년 9월에 우뚝성영상미디어센터가 만들어졌고, 내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사회작업동조화는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거의 봉사하는 곳인데, MBC를 퇴직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관심도 생겨 참여하고 있다.”

- 퇴직 이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다.

“퇴직하면 영상 분야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뭘가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부를 많이 했다.”

- 후배 영상기자들이 무엇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해 준다.

“앞으로 영상이나 미디어 교육 분야가 활성화될 것 같다. 영상기자들은 현장에서 제작하는 능력은 뛰어난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제작만 잘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영상 제작이나 미디어에 대한 이론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연습과 접근 방법 등도 공부해야 한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없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영상 교재도 만들었지만, 후배 기자들은 미디어 교육 관련 강의가 있다면 미리 듣고 준비하면 좋겠다.”

- 이론과 교수법을 갖추면 퇴직 이후 진로가 밝다는 얘긴가.

“그렇다. 아이들은 친구들을 만나 노는 시간보다 혼자서 영상을 보는 시간이 더 많다. 영상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한다. 따라서 영



상은 곧 언더다. 요즘 아이들에게 유튜브 브이로그는 영어보다 가깝다. 그렇다면 이 언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소통에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기자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퇴직하면 60이 넘는데, 아이들은 나이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이다.”

- 기회가 있는데도 현장에 퇴직 영상기자들이 거의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방송사 출신인 영상기자들은 자기가 유튜브들과는 다르거나, 내가 초종교 애들을 가르칠 수준은 아니라는 우월감이 있을 수 있다. 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의뢰인들도 ‘방송사 출신인데, 돈이 많이 들진 않을까? 지역까지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줄까?’ 하는 생각에 접근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보수를 떠나 내가 해온 일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하니 한 명이어도 좋고 두 명이어도 좋더라. 나이와 화려한 과거를 내려놓고 같이 배우면서 가르친다고 생각해야 한다.”

- 방송사 출신이라고 하면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

“아이들이 우선 선생님의 수준을 높게 평가해 준다. 처음엔 이게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기자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경력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방송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었다.”

-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쉽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 전부터 영상이 영어나 국어처럼 초등학교부터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영상기기를 접하고 소유하기 쉬워진 1인 미디어 시대가 왔으니, 교육도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와 교육 기관이 연계해 퇴직한 영상기자들이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10년~15년 정도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 나도 퇴직하고 7년째 일하고 있는데, 제작 현장도 다닌다.

특히 지방은 여러 여건이 열악한 반면 아이들은 시간이 많다. 기본 정규 수업에 못 들어가더라도 방과후수업이나 진로 수업 등과 연계해서 협회 출신의 능력있는 사람들이 투입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젊고 유능한 강사가 많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강사 인프라가 없으니 퇴직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뉴스VIEW

‘공공기록’으로서 보도영상의 가치, 영상기자가 끌어올려야 할 때

최근 방송·영상 산업 분야 인파에서 ‘아카이브(우리말로로는 ‘기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자사 영상자료를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편집하여 이른바 ‘회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또한,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옛날 콘텐츠’ 또는 ‘클래식 콘텐츠’라 불리는 과거에 촬영된 방송·영상물을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클립 형태로 편집하여 업로드하는 현상은 이미 ‘트렌드’가 된 듯하다. 방송·영상 산업 분야에서 언제부터 이러한 제작 형태가 자리 잡았는지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018년 KBS 스포츠국에서 88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방영한 <88/18> 이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영상자료’, 다른 말로는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커졌다. 학술연구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은 뉴스 영상으로 보도되었던 크고 작은 사건사고부터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뉴스로 기록된 우리의 과거 모습을 ‘다시보기’하고자 방송사 유튜브 채널이나 국가기록원 등의 공공기록관을 찾는다. 일반적으로 현대사 영상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대한뉴스>와 같은 공공 부문에서 제작한 뉴스영화를 참고하지만, 최근 학술연구·전시·출판·교육 등에서 현대사 영상자료가 필요한 사업에서 공영방송의 뉴스는 물론 지역 민영방송에서 제공한 뉴스 또한 중요한 ‘공공기록’으로 활용된다.



최효진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연구원)
(세종공영성문화유산정책포럼 상임이사)

영상은 물론 자사 취재영상까지도 취재자, 취재일자, 취재장소, 취재상황 등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채 보관해온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과연 ‘1980년’이라는 아주 오래된 시점의 보도영상 이기에 누락된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방송사 ‘디지털자산관리시스템(Digital Asset Management, MAM)’, ‘자산개념 넘어 사회적 ‘공공기록’이라는 고민으로 확대되어야

필자는 지난날 해한 방송사 보도영상국의 ‘멤 시스템 활용’ 컨설팅을 수행했다. 해당 방송사 보도영상국의 인제스트 요원들이 영상을 인제스트하여 이후 편집에 활용된 영상이 정리되어 보관되는 과정을 일정한 기간 모니터링 하였다. 인제스트하는 단계에서 어떤 정보가 입력되는지, 인제스트된 영상의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기술되는지 살펴보고, 보도영상 관리와 관련된 주요 직군인 인제스트 요원, 영상편집자, 아카이브매니저를 인터뷰했다. 그 결과 보도영상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인 생산일자, 취재진 이름, 영상 유형(인터뷰, 스케치, 녹취 등) 등의 표기가 누락된 클립이 축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취재영상을 인제스트 하는 단계에서 취재 주요 인력인 영상기자와 취재기자는 메타데이터 관리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상 인제스트를 담당하는 인제스트 요원들과 영상취재 현장에서 영상기자를 보조한 오디오오프의 빠른 업무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입력 규칙이 ‘멤’ 주요 이용자, 즉 보도영상국 구성원과 공유되어 있지 않아 인제스트 요원과 영상편집자의 입력 방식이 서로 다른 점도 확인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방송사에만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방송사에 따라 보도영상 메타데이터 관리에 효율적인 체계를 갖춘 경우도 있지만(YTN 메타데이터 매니저, MBC 영상데이터 팀 등), 이러한 체계 또한 해당 방송사에서는 현장에서 영상취재에 참여한 영상기자의 메타데이터 입력 역할이 뒷받침되었을 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사마다 보도영상 관리체계의 편차는 있는 편이지만, 특히 취재원본영상, 즉 ‘소재자료’를 관리하는 체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영상기자들이 2022년에 취재하여 뉴스로 보도된 보도영상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또는 20년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사후 재활용(Reuse) 단계에서 취재된 당시의 사실관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취재 현장에서 ENG카메라를 들고 취재하는 영상기자가 취재 이후의 보도영상 정보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각 사의 보도영상이 ‘공공기록’의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상기자 개인의 의지나 업무스타일에 의존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각 사의 보도영상 메타데이터 항목은 물론 항목별 주요 정보(취재담당자, 취재장소, 취재원, 인터뷰 내용, 취재 맥락 등)가 메타데이터에 정확히 반영되어 기술되고 있는지 기술현황을 점검해보자 한다. 또한, 한국영상기자협회와 회원사가 함께 보도영상이 갖추어야 할 ‘공공기록’ 요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해야 한다. 각 사가 구축한 ‘멤’은 해당 방송사의 뉴스프로그램을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드는 업무관리시스템이기도 하지만, 향후 우리 사회의 ‘공공기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고자 한다. 현장에서 취재에 임하는 영상기자들이 좀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보도영상을 우리 사회의 ‘공공기록’으로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리처드 콕스,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사후 평가 원칙(Cox, Richard (1994).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38). 오항녕 역 (2006). <기록학의 평가론: 사초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서울:진리탐구출판사.
양용철 (2010). <보도영상 현장매뉴얼>. 서울: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최효진 (2021). <‘공공영성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방송·영상 컬렉션 수집 및 활용방향.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학위논문.
최효진 (2013.12.5). 메타데이터의 질이 보도영상의 가치를 결정할 것 -메타매니저 YTN보도영상 아카이브팀 유영식 인터뷰. 한국영상기자협회 미디어아이 제93호 (2013년 12월호).
http://tvnews.or.kr/board_Cy/Ed37/28396

제 105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평

영상기자의 순발력, 독심, 새로운 시선, 현장기자로서의 노력들 돋보여

서 태 경 2022 영상기자상심사위원회장

지역뉴스 특종 단독 보도 부문, KBS 춘천의 임강수,이장주 기자가 보도한 “춘천 도심 하천 물고기 집단 폐사 연속보도 7편”을 수상작으로 결정 했습니다.

한 통의 제보 전화로 시작된 이 취재는 강원 대학 어류 전문 연구팀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근처 농공단지로부터 방류된 유독 성분의 화학 물질이 집단 폐사의 원인을 밝히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회성 이슈 보도가 아닌 연속 보도를 통해 검사 기준의 문제점과 대책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수중촬영과 드론을 이용한 영상은 집단 폐사한 물고기를 다각적,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컸습니다.

멀티 보도 부문에서는 KNN 전재현 기자가 출품한 “위대한 유산 100경 하늘에서 본 낙동강 오디세이”로 결정했습니다..

제작 기간만 3년이 넘는 긴 시간.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자연 유산을 100편으로 나눠서 미니 다큐로 만들었는데 수려한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의 깊이를 더 했습니다.

영상 기자는 사건, 사고의 기록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재 모습을 영상에 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입니다.

더구나 지역 방송사의 쉽지 않은 제작 여건임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1인 제작 시스템으로 만든 전재현 기자의 노력을 심사위원들이 높이 샀습니다.

인권, 노동 부문에서는 KBS 대전의 심각현 기자가 출품한 “달 그릇 2부작 나는 일제 강제 동원 생존자입니다”를 수상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된 조선인이 760만명인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약 1,800여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엔 피해자의 직접 증언은 듣기 어려워질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작품은 아직 살아 계신 100살 생존자 네분을 카메라 앞에 세워, 인터뷰를 통해 담담하게 담아내었습니다.

이 점에서 심사위원들은 심각현 기자의 시각을 높이 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잊혀지고 있는 역사의 피해자들을 찾고 그분들을 오랜 시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는 점, 그 끈기와 기자 정신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MBC 충북의 김병수, 신석호 기자가 출품한 “UHD 영상뉴스 ‘미래 유산을 찾아서’ ” 3편이 새로운 시선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지만 유지,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거의 유산들을 찾고 그것들이 미래의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한 작품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개통한 충북선에 유일하게 남은 근대 산업의 상징 급수탑, 100년 묵은 양조장, 성당 건축의 백미 주교좌 성당 등, 멀지 않은 그 지방 주변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 했습니다. 영상 기자 단독으로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이기에 특별히 더 주목받았습니다. 요즘 영상 제작 현장에 없어서는 안될, 드론 특수 촬영으로 문화재들의 가치와 상태까지 유려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특히 방송 이후, 그중 두 개의 미래 유산이 등록 문화재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니 방송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된 좋은 예입니다. 사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비슷한 제작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의미와 저널리즘적 분석을 더함으로 수상작으로 선정하기에 손색이 없는 작품입니다.

환경 보도 부문에 KCTV제주방송 김용민 기자가 출품한 “1. 보이지 않는 공포, 항공 미세먼지 2. 심각한 선박 미세먼지... 사각 지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관광지, 제주가 정작 관광객들이 오가는 항공기와 선박이 내뿜는 매연과 오염 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영상으로 극명하게 잘 보여 주었습니다.

항공유에 첨가된 유해 물질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서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이수화했습니다. 특히 김용민 기자는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하고 기획했을 뿐만 아니라 선박과 항공기에서 내뿜는 매연을 시작적으로 영상에 담아내 청정 지역 제주도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줘 앞으로 제주도 환경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달의 영상기자상 ‘새로운 시선’ 부문 수상소감

시간 속에서 잊혀져가는 “미래유산을 찾아서”

MBC충북 김병수, 신석호(글) 기자

<미래유산을 찾아서>는 주변에 소외되고 잊혀져가지만 역사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찾아 영상으로 기록하고자 한 기획보도이다. 나에게 ‘미래유산’이란 단어가 주는 첫인상은 다소 묵직했다. 그 까닭은 문화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려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책임감과 사명감이 따랐다. “잘 해낼 수 있을 까...?” 자칫하면 의미와 목적이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신중을 기했다.

공원 한쪽에 놓인 급수탑은 다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저게 뭐죠 굴뚝인가요...” 동네 주민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다. 듣고 보니 웬지 그런 것도 같았다. 만일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나조차도 모르고 지나쳤을지 모른다. 아니 그렇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소홀했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잊혀져가고 있었을 뿐이다. 1928년, 건축연도다. 당시 물자수송의 핵심이었던 철도시설에서 증기기관차는 석탄으로 물을 끓여 발생하는 증기로 힘을 얻어 움직였는데 이를 위해 물이 반드시 필요했다. 따라서 증기기관차에 물을 급수해주었던 급수탑이라는 건축물이 역 사이마다 필수로 존재했던 것이다.

과산 목도 양조장은 1921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막걸리를 만들었던 근대산업시설 중 하나다. 한 세기동안 3대에 걸쳐 원형을 보존하며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건축물의 공간의 특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보존되고 있는 전통적인 막걸리주조 기술의 특징과 이를 계승하려는 기업 정신에 주목했다. 1961년 건립된 청주 내덕동 주교좌성당은 당시 동서양 성당 건축물의 조화로운 특징을 띠고 있다.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조그만 공간에 예배실을 따로 두어 사용했던 당시의 생활상이나 측면에 위치한 종탑, 중국풍의 지붕 등은 기존 성당에서 찾아볼수 어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취재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건축물들에 대해 알게게 되었다.

무엇보다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 시청자들에게 명료히 전달해야만 했다. 인터뷰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취재기자의 내레이션이 별도로 없어 이야기 구성과 흐름에 있어 반드시 필요했고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뒷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인터뷰 과정이 서툴렀다. 어떠한 점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답아야 하는지, 판단이 쉽사리 서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촬영 시 부파인터만 바라봤는지 내용에는 다소 소홀했었던 점이 있다고 느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인터뷰어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매끄럽게 다듬기’
4분 30초, 영상뉴스의 방송 러닝타임이다.
한 달, 기획부터 최종 편집 작업까지의 총 소요시간이다. 촬영부터 CG, 색보정, 오디오 믹싱 등 종합 편집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업들을 거쳐야 하는데 결국 하나의 작품에 이르려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성있게 작업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촬영한 영상은 어떠한 톤과 색



상으로 표현할 것인지, 컴퓨터 그래픽을 입혀 시청자들에게 내용들의 이해를 도울 점을 찾고, 음악의뢰를 할 때는 분위기에 적합한 멜로디 표현할 것인지, 오디오 믹싱을 통해 효과음과 음악, 목소리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들이다. 결국“어떻게...?”라는 단순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시간들을 활용했다.

방송 후,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고시
방송이 된 후 2022년 8월 현재, 충주역 급수탑과 과산 목도 양조장 충북도 제1호, 2호로 등록문화재로 고시되었다. 지역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하여 지자체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영상기자로써도 큰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하고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다.
앞으로도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 또한 이것들을 널리 알리고 함께 보존해 나가길 바란다. 끝으로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격려와 배려를 아껴주시고 있으며 항상 조언과 도움을 준 MBC충북 영상국 국장님과 함께 기획, 제작한 김병수 선배를 비롯해 선배님들과 후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달의 영상기자상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 부문 수상소감

KBS춘천 <[단독] 춘천 도심 하천 물고기 집단 폐사 연속보도 7편>

KBS춘천 임강수(글), 이장주 기자

“공지천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있어요.” 취재는 갑작스러운 제보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춘천 공지천은 아이들이 물장난을 하고, 어른들은 낚시를 하는 30만 시민들의 휴식처다. 바로 이곳에서 사는 민물고기 수천 마리가 한날한시에 떼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를 듣고 즉시 취재팀을 꾸려 현장에 나가 보니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도심 하천을 따라 1km 가까이 물고기가 죽어 가라앉거나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다.

취재를 시작함과 동시에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어류 전문 연구진에 동행 취재를 의뢰했다. 하루부터 이미 춘천시에서 물고기 수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서둘러 드론과 액션캠을 동원해 죽은 물고기 폐사체들을 촬영했다. 또 오염수가 흘러가버리기 전에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찾기 위해 대학 연구진과 하천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 결국 오염수를 배출하는 배수관을 찾았고 펌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오수를 촬영할 수 있었다. 그렇게 폐사가 벌어진 현장 영상과 폐사체, 오염수를 확보했다.

사고 발생 당일 폐사 상황을 보도한 취재진은 대학 연구진과 함께 폐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심층보도에 착수했다. 대학 연구진은 독극물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치할 경우 공지천은 북한강으로 유입돼 서울과 경기도의 식수원인 한강으로 흘러들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강원대학교 연구소의 오염수 분석 정보를 공유하며 오수관과 관련된 춘천시청 공무원들을 취재해 하천 상류에 있는 농공단지를 오염수의 출처로 특정했다. 농공단지는 다수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고 대학 연구진의 오염수 분석 결과 ‘뷰티페놀’과 ‘아지라디닐’ 등 의약품 개발에 쓰이는 인공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전문가와 합심해 물고기 폐사 원인을 검증해낸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염수의 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진과 물고기 생존 실험도 진행했다. 실험대상은 5급수의 시궁창에서도 산다는 민물고기 붕어. 붕어의 끈질긴 생명력은 강인했지만 4시간의 기다림 끝에 붕어가 오염수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실시간으로 진행한 긴 촬영시간만큼 배터리는 부족했고 카메라는 하나를 꺼졌지만, 꺼졌다 다시 켜지는 찰나의 순간을 활용해 끈질기게 취재를 마쳐 값진 영상을 보도했다. 그렇지만 춘천시는 폐사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물고기 폐사체를 빠르게 폐기 처리한 뒤 미흡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따라 안일하게 대응했다. 결국 폐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자를 가려 환경을 훼손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보도를 본 많은 시청자들이 이 사태와 행정기관의 허술함 대응에 대한 우려와 질타를 표했다. 일부는 취재진의 용기와 끈기 있는 보도에 대해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또 춘천시는 오염수 유출 배수관을 폐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춘천시의 즉각 부실 대응에 경고하며 산하기관에 수질오염 대응체제 일제 정비를 지시했다. 환경부도 유독물질 관리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취재를 통해 밝혀낸 유독물질에 대해서 배출금지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월은 물고기의 달”이라고 할 정도로 한 달 동안의 끈질긴 취재가 영상기자상으로 결실을 맺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취재한 조휴연·김태희 기자, 바쁜 학사일정 속에도 내 일처려 흔쾌히 취재와 실험에 응해주신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연구진, 부족한 인력으로 매일리 뉴스를 제작하면서도 심층취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KBS 춘천총국 보도국 설희배·동료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달의 영상기자상 ‘멀티보도’ 부문 수상소감

1인 제작시스템으로 3년간 기록한 경남의 산하 100경

KNN 전재현 기자

사실, 영상기자와 합은 현장에서 취재기자, 취재원들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PD의 역할도 하고, 편집실에선,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는 일을 늘 해야했기 때문에, 3년 전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 주 1회 편성된 7~8분짜리 100회의 영상이 주가 되는 미니다큐...

“뭘, 드론 좀 쓰고, 예쁘게 촬영해서, 길게, 길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촬영과 편집 말고는 내가 잘 하는 게 없다는 것을 이번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니, 촬영마저도 어려움이었습니다. 입사 이후 ENG카메라만 거의 사용해왔는데, 익숙하지 않은 소니 미러리스카메라는 촬영을 더디게 만들었고, UHD송출을 기본으로 제작하다보니, 1박2일 촬영 후 드론, 타임랩스 등 400기가이상의 데이터 용량과 편집기의 버벅거림은 베타캠과 HD제작환경만 경험해본 제게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되었습니다. 풍경이 주가 되는 영상이기에 날씨의 도움을 잘 받아야 가능한 촬영들이 너무나 많았고, 기본적으로 일출과 일몰 등은 그 시간에 가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업무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마기간은 날씨의 도움을 받기가 정말 힘들었고, 결국, 비가 내려도, 어색하지 않을 아이템 찾는 것부터가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상기자일을 하면서, 일 때문에 종편실과 음향편집실에 가 본건 100경작업을 하면서가 처음이었습니다. 자막에 사용할 글자체는 왜 그리도 많은지... 한 번도 결정해 보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00경 초기에는 부산 연극배우나, 자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입혔는데, 목소리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결국, 서울쪽 성우에 서울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때 서울스튜디오에선 대본 한번 보낼 때, 2회분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이때부터 항상 시간에 쫓겨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100경을 제작하면서, 왜 혼자만, 제작을 해야하지, 그냥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좋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00경을 다 끝낸 지금 생각해보면, 촬영과 편집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날씨, 스케줄정리, 촬영장비, 편집장비, 제작비, 제작비정산까지...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제작하기에는 무리했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1인 제작시스템의 장점으로 일사분란한 작업도 있지만, 제작비측면에서도 상당히 장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제작 환경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며, 촬영에 특화된 영상기자가 영상을 촬영하다보니, 드론, 짐벌, 미니지미징 등의 장비를 외주업체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운용가능 해서, 비슷한 값의 미니다큐에 비해 절반이상 제작비를 줄일 수 있었



습니다. 뉴스를 제작 할 때는, 사실 제작비를 한번도 생각해보적도 없는데, 잠시나마, 제작비를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00경의 경우,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샷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프로그램 보다는 초상권에선 수월했지만, 매주 원스톱에 드론촬영허가와, 군부대 연락으로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대마다 다른 대응으로 어떤 부대는 직접 관계자가 현장에 나오기도 하고, 촬영한 그림만 보내 달라 또는 전화도 안 받는 부대까지...

상하고 친하지 않는 제가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받아서 기쁜 건,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인정해주셔서 일겁니다. 아마도 상의 의미는 ‘혼자 제작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어!’ 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글로 100경을 돋보이게 해준, 박선민작가와 현장에서 같이 고생한 김민석 조연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달의 영상기자상 ‘인권노동보도’ 부문 수상소감>

얼마 남지 않은 기억을 찾아서...

KBS대전 <달그릇 2부작, 나는 일제강제동원 생존자입니다>

KBS대전 심 각 현 기자



우연이 필연이 되는 일이 나에겐 참 많은 것 같다. 사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나로서는 일상 생활에서 일제강제동원과 관련해 큰관심을 갖고 있던 않았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고통을 인내로 참으며 살아 온 사람들..

정말 우연히 2022년 피해 생존자가 1800여 분만의 로지원자 기준) 남아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하나 접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 국내.외로 강제동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며 난 다소 상기(上氣)했었다. 현재 매년 700~800여 명의 생존자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에 늘 그렇듯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걸게 되고, 확인된 사실에 기획을 했고, 흔쾌히 제작을 하라는 중국장님의 허락에 여기저기 섭외를 진행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쉽지 않았다. 촬영의 제일 큰 난관인 섭외가 생각보다 매우 어려워 웹다큐 '달그릇' 제작 2년 만에 가장 큰 곤경에 빠졌었다.

우여곡절 끝에 90대 후반인 피해 생존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고, 부산으로, 광주로, 태안으로 그리고 서울로 아직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억을 카메라로 기록하기 위해 인턴 대학생, 운전기사와 함께 열심히 돌아다녔다.

생존자들은 100살에 가까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때의 기억이 매우 또렷했으며 그 때의 고통과 울분이 그들의 머리와 입을 타고 카메라에 전달될 때



는 왠지 모를 아픔과 슬픔이 낮게나마 함께 느껴졌었다. 약 2시간 정도의 인터뷰 시간 내내 초고령의 나이와 몸 상태에도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카메라에 넣어 주시려는 피해 생존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헌신에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누군가의 '삶'을 기록하는 건 곧 '역사'를 기록하는 일인 것 같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모 기관 방명록에 '기록은 역사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카메라든, 펜이든 어떤 도구로 누군가의 '삶'을 기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아닐까? 그게 또 방송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의무 아닐까? 달그릇 2부작 '나는 일제강제동원생존자입니다'에 출연하셨던 가재학 할아버지께서 지난 달 하늘나라로 가셨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가재학 할아버지, 당신의 증언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는 난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흔적'을 기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아직도 외면받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 이들의 얼마 남지 않은 기억의 기록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달의 영상기자상 ‘환경보도’ 부문 수상소감>

무심히 제주 하늘 위 비행기를 보다 깨달은 항공미세먼지의 심각성

KCTV제주방송 <보이지 않는 공포, 항공-선박 미세먼지 연속보도>

KCTV 제주방송 김 용 민 기자

제주공항 계류장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보았습니다. 심한 냄새와 뿌연 연기를 흠날리며 상공으로 날아간 비행기를 바라보며 문득, 비행기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지 궁금해져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노선은 '제주-김포' 노선입니다. 하루 평균 5백여대의 비행기가 100초에 한대꼴로 이착륙 합니다. 어느 순간 익숙해져버린 계류장에서의 비행기 탑승과 버스이동... 누구나 냄새와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매연 실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지향하며 자동차와 발전소 등 여러 오염원에 대한 제제를 가하고 있지만, 항공기는 배출가스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을 정도로 환경 오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제주에서 발생하는 항공, 선박미세먼지 실태는 어떤지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과 실제 사례를 영상을 통해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항공, 선박 미세먼지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실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항, 국토부, 항공유 제조사 등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취재 장벽이 높았습니다. 단기간에 취재가 불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우사 물질보고서 등 성분자료를 어렵게 입수해 과연 현재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이 제주환경과 도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증에 검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조사인 만큼 인과관계 확인과 환경, 법률, 의학 등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항공기미세먼지 영상은 매일 아침06시부터 09시까지 비행기와 역광을 만들어 가면서 촬영했습니다 역광에 보다 많은 먼지를 촬영할 수 있어서 아침일찍 촬영했습니다. 항공기미세먼지 촬영에 가장바쁜 노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류장전체를 사진(7680-4320)으로 타임랩스촬영을 했습니다

이륙과 착륙 바쁘게 움직이는 계류장모습을 전체촬영 후 크롭하여 사용했습니다 7680-4320 사이즈를 1920-1080사이즈에 4가지 그림으로 크롭해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이륙과 착륙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선박미세먼지 영상은 주로 17시부터 19시에 집중적으로 촬영했습니다. 황산화물이 들어간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배출가스가 어둡기 때문에 색을 잘표현하기 위해서 순광과 사광촬영을 주로했습니다. 비교적 정확한 결과물을 보여줘 보도영상에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 건지 야간에 직접 촬



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직진성이 매우강한 조명을 활용해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 모습을 촬영해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덧붙여, 좋은 평가를 해주시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 취재를 위해 밤낮없이 같이해준 문수희 기자에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남겨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현 재 추세라면 오는 2040년에는 항공기 탄소배출량이 지금보다 4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제주에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제주의 환경과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항공유 물질보고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확한 정보 공개를 바라 봅니다.

<현장에서>

여전히, 오늘도, ENG. 다시 생각하는 ENG카메라의 미래

김 남 성 SBS A&T 영상취재팀

“ENG 이걸 꼭 써야 되나요?”

영상기자가 장래 희망이라는 한 지방생이 내게 직접 했던 말이였다. 말문이 막혔다. 그들의 눈에 비춰진 ENG는 크고 무겁고 이제는 성능조차 백만원짜리 미러리스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그런 촬영장비였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왜 쓰는지 의문조차 가지지 않은 채 ENG를 들고 심년남게 일을 해왔다. 적어도 내가 이 일을 배우기 시작한 그 시절엔 그게 당연했다. 뉴스 영상은 곧 ENG로 통용되던 때였다.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분되던 촬영이라는 영역은 어느덧 사람도 장비도 이제는 그 경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유튜브를 위시한 개인미디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문가보다 훨씬 '잘' 찍는 '일반인'이 늘어났고, 장비 역시 엄청나게 발전했다. 핸드폰 하나로 4k 영상을 촬영하고 스트리밍과 편집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간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보수적이기만 하던 뉴스 영상 분야도 ENG로는 성에 차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 당장 포털사이트에서 영상 뉴스 하나를 클릭해보자. CCTV, 블랙박스, 액션캠, 드론... ENG 영상보다 그 외의 소스들이 훨씬 많이 눈에 띄는 것이다. ENG만 잘 다뤄서는 좋은 '뉴스영상'을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ENG를 기획하고 만드는 제작사의 사정은 어떨까? ENG 시장의 양대 산맥중 하나인 소니는 가장 발빠르게 차세대 4k ENG를 연달아 출시했지만 시네마 장비에 밀려 솔더캠과 더러는 명칭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다. (심지어 ENG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다.) 파나소닉은 최근에야 4k ENG를 뒤늦게 출시했지만 전용 이미지센서도 갖추지 못한 채 영상완전 완성도의 제품으로 구매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듯 고급 영상 제작 장비의 대명사였던 ENG는 찍는 사람, 보는 사람, 만드는 사람 모두에게 외면당한 채 골동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UHD시대에도 80%의 영상기자들이 ENG를 선호하는 이유-기동성과 신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영상기자협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다. 설문에 참여한 영상기자 중 약 80%가 4k시대

차세대 영상취재 장비로 ENG가 적합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왜일까? 마냥 단정 떨어리로 보이는 ENG 카메라를 왜 영상기자들은 고집하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짧게 정리해보면다면 기동성과 신뢰성으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계식 광학계를 그대로 노출시켜 조작이 직관적이고 간편하면서 촬영에 필요한 모든 파츠가 합쳐져 있기에 기동성이 뛰어나 현장 대응에 유리하다. (배터리와 공미디어만 넣으면 촬영 준비가 거의 끝난다. 무선 마이크 수신기를 따로 행길 필요도, 화각별 렌즈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튼튼한 내구성과 전자제어가 최소한으로 적용된 바디가 신뢰성을 담보해준다. (최신의 오토포커스 렌즈들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수동조작이 전혀 불가능한데 ENG의 렌즈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원이 끊겨도 모두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각 파츠가 독자적으로 설계되어 모듈식으로 조립되어 있다보니 가능한 부분이다.) 고화질의 출력자리를 이용한 MNG와의 확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ENG 카메라의 단점은 너무나 명확하다. 최근 출시된 신제품들조차 20여년전에 개발된 HD모델에 비해 드라마틱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최신 촬영장비의 트렌드인 트래킹 AF나 가변 ND, 고감도-고속촬영 등은 아직 요원하다. 송출을 하거나 스트리밍을 하려면 여전히 노트북이나 MNG가 꼭 있어야 하고, 결과물을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 역시 번거롭게 느껴진다. 성능 대비 크고 무거운 건 애교로 느껴진다.

4K UHD 시대의 ENG가 나아갈 길

열거된 단점들을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ENG는 아직도 발전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AF와 오토헬이트밸런스, 경량화 등의 요구사항은 이제는 다소 식상하기까지 하다. 차세대 촬영장비로서의 ENG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정답은 'Connectivity' 즉, 연결성에 있다고 본다. 작고 녹화해서 송출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ENG가 존재하는 현장이 곧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ENG의 신뢰성에 더하여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스트리밍과 클라우드 전송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5G



네트워크의 넓은 대역폭은 기존 LTE 기반 장비에 비해 더 적은 모뎀으로 동일한 전송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부피와 전력소모를 줄여 카메라에 통합된 모듈 형태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더 긴 구동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NG의 기능에 더하여 실시간 유튜브 중계등을 ENG 바디 차원에서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본은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인제스트가 될 때니 원본송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영상기자를 해방 시켜 줄 것이다. 5G 네트워크의 핵심인 짧은 레이턴시는 장비를 실시간 원격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여 멀티캠 혹은 리모트캠 환경에 ENG의 쓰임새를 넓혀 줄 것이다. ENG 카메라 자체가 소규모 뉴스스테이션이 되는 것이다.

얼마전 파나소닉은 4k ENG 신제품 시연회를 통해 그들의 향후 세일즈 포인트가 카메라 바디 자체의 성능 향상보다는 네트워크 기능 강화에 치중해 있다는 걸 보여주었는데 제조사의 ENG 발전방향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영상기자들은 매일매일 더 나은 뉴스영상 촬영을 위해 어떤 장비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오늘 내가 어떤 현장에 던져지고, 어떤 피사체를 찍게 될지, 어떤 기상조건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ENG는 영상기자를 위해 만들어진 최적의 솔루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ENG 카메라만을 고집할 수 없는 시대가 된 만큼 ENG카메라로 다져진 기본 개념으로 다양한 촬영 장비를 적재적소에 융통성 있게 조합해 쓰는 것이 영상전문가로서 영상기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영상기자의 역사는 곧 ENG 카메라의 역사였고 앞으로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기에.

UHD 방송시대에도 영상기자들은 여전히 ENG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역사의 현장을 누빌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데스크연수,전국회원연수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106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작품 공모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뉴스와 보도프로그램 중에서 투철한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도영상 발전에 공헌한 기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 킷 한 킷의 영상 속에 오늘을 역사로 담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기자정신과 영상전문가로서의 땀과 열정이 담긴 보도영상작품을 <이달의 영상기자상>에 공모해 주세요.

■공모시상부분(정회원예 한함)

- ▲뉴스특종단독부문
- ▲지역뉴스특종단독부문
-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 ▲보도특집다큐부문
- ▲멀티보도부문
- ▲'새로운시선' 부문
- ▲인권,노동보도부문
- ▲국제,통일보도부문
- ▲환경보도부문
- ▲문화-스포츠보도부문

■출품대상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보도영상을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

■제출기간

2022년 9월 1일(목) ~ 9월 14일(수) 오후 6시까지(출품기간 및 시간 엄수)

■심사 : 2022년 9월 27일(화)

■심사 결과 발표 : 2022년 9월 27일 (화) 오후 8시

■제출서류 및 방법, 유의사항은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www.tvnews.or.kr)

■문의 : 한국영상기자협회 사무처(02)3219-6476

2022 데스크, 지부장 연수 참가기

방송환경, 취재환경의 변화의 한가운데서
영상기자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한 시간



KBS춘천 고명기 부장

열공모드로 정진한 1박 2일

협회에서 데스크 연수를 진행한다는 문자가 몇 번 왔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일정이었다. 춘천에서 가려면 교통편도 불편하고 운전을 해서 가더라도 족히 5시간은 가야 한다. 몇 번 망설이다가 연수를 신청했다. 영상기자와 장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며, 타사 및 타지역 데스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①ENG 카메라, ②MNG, ③보도영상의 변화라는 주제로 짜여 있었다.

흔히들 연수 간다고 하면 휴식과 여유로움을 생각한다. 나 역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을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설렘었다. “설마 커리큘럼에 있는 것처럼 뻔뻔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침 7시 30분에 춘천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열심히 운전을 했지만 고속도로에 공사 구간이 많아 차량이 밀렸고 내 예상과는 달리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호텔에 도착했다. 점심도 못 먹었는데 바로 연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연수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빼고 6시까지 진행되었다. 1박 2일 연수기간 동안 꼬박 10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다. 느슨해진 내 생각을 열공모드로 전환해야만 했다.

취재,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기자의 강점과 발전방향 고민

연수를 받으면서 가장 관심이 간 주제는 <영상 보도가이드라인과 보도영상의 변화>였다.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님이 진행한 강의는 26년간 촬영기자로서 체득한 영상취재, 보도에 대한 나의 관점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렸다. 이교수님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서 법원 판결이 난 사례를 예시로 초상권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설명 해주었다. 과거에는 뉴스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조금은 무리한 촬영기법과 편집을 했어도 방송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최근의 추세는 개인의 인권과 초상권이 최우선시 되는 쪽으로 판결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행사장에서, 축제장에서, 공원에서 당연히 촬영했던 영상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논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상미 있는 화면과 사실적이고 주제가 있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훈련 받은 촬영기자들은 이제는 새로운 영상문법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개인은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촬영기자는 개인을

촬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카메라와 MNG(Mobile News Gathering) 장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향후 몇 년 후엔 ENG카메라와 MNG가 일체형으로 결합해 촬영 즉시 클라우드 서버로 송출이 되고 방송국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영상을 다운받아 제작이 가능해지리라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장비는 진화할 수밖에 없고 우리 촬영기자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몇 년 전에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한 전자 회사의 광고 문구가 있었다. 요즘 영상기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기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되묻고 싶다. 예를 들면, NLE(Non Linear Edit)의 도입으로 영상기자들은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영상효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드론의 도입으로 더 이상 헬리콥터에 의지하지 않고도 간단한 드론 조종 자격을 취득하면 누구나 드론을 운용해서 항공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MNG의 도입으로 중계자 역할까지 대신하며 그야말로 방송국의 멀티플레이어가 되었다. 이렇듯 촬영, 편집, 장비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직종은 아마도 촬영기자가 유일한 듯하다. 하지만 그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촬영기자의 조직과 위상이 함께 성장했느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기술을 습득하고 따라가는데 급급해서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세우는 데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영상기자들은 자유로워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영상기자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지금 각사에는 능력 있는 영상기자들이 무수히 많다. 더구나 영상기자들은 1인 미디어에 그 어느 직종보다 최적화된 사람들이다. 이런 능력 있는 영상기자들이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한다면 영상기자 조직은 더욱더 성장하고 매력적인 조직이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갖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영상기자들이 뜻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영상기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 협회가 끌고 영상기자 개인들이 노력을 한다면 영상기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가까이 있지 않을까?

“ENG 손에 익자 현장 메시지 들려...
다양한 사람의 작은 부분까지 조명하는 영상기자 될 것”

[신입회원 인사] KBS 김현민 기자

어느덧 입사 8개월 차가 되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냈더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내가 꿈꾸던 영상기자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누비는 직업이었다. 아주 작은 사건부터 재난 현장까지 모두 발로 뛰고 눈으로 담는 직업이었다. 실제로도 그렇다. 서울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 해외까지 영상취재의 영역은 끊임없다는 걸 느끼고 있다. 영상기자가 되기 전에 뉴스를 라디오처럼 소비했다. 누군가 취재해 완성된 영상이라는 사실이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아직까진 많은 시청자들이 영상취재의 역할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 아쉬움과는 별개로 영상취재는 결코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님을 하루가 다르게 느끼고 있다. 일정을 받아 취재를 나가면 내가 결정해야 할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크기는 취재 동선, 취재의 방향, 쟁점이 할 그림부터 시작해 식사 시간까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나의 판단 실수로 시간 분배만 잘못해도 전해야 할 사실을 놓친다. 하루 종일 취재한 결과를 2분으로 축약하는 과정 역시 결정의 연속이다.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해 더 많이 경험해야 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동기들이 전국장애인철페연대(전장연) 전문가라고 농담을 던질 정도로 차별 철폐 시위 현장에 많이 나갔다. 사람이 많아 발 디딤틈 없이 복잡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그들의 투쟁을 담았다. 함께 무릎을 꿇어가며, 휠체어 바퀴에 치여가며 일정을 끝냈을 땀 뻘뻘함과 농진 컷에 대한 아쉬움이 물려왔다. 처음에는 서툰고 어설피게 1인분의 역할을 해내느라 기계처럼 찍기 바빴다. 조금씩 익숙해지고 ENG가 손에 익을 때쯤 시위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하철을 막고 맨몸으로 역사를 기어 다니는 방식이 과격하다 해도, 차별 철폐라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



하는 외침이 처음으로 들렸을 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은 아직도 있을 수 없다. 취재 내용이 어려울 때면 선배들의 영상을 찾아보곤 한다. 대리기사 동행 취재, 장애인 동행 취재, 폭염 취재 등 다양한 취재는 5-6년 전에 이미 다 했던 취재일 때가 많다. 참고할 영상이 있음에 감사하다가도 문득 아직도 같은 내용으로 현장에 나가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그래도 매번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사건사고나 재난과 같이 규모가 큰 뉴스가 아니라라도 다양한 사람의 작은 부분까지 조명하는 영상기자가 되고 싶다.

2022 전국회원연수 참가기1

현장영상기자들의 고민과 변화의 노력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한 기회

제주MBC 손세호 기자

전국회원연수 2박 3일의 시간은 제가 일하고 있는 제주도를 넘어 전국의 선배, 후배 기자 분들과 함께 다양한 지식을 얻고 영상기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UHD 시대의 영상기자와 ENG카메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MBC충북 김병수 기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ENG카메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우리의 신체 일부분처럼 사용하는 ENG카메라의 시작과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 출시될 UHD ENG카메라의 개발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어진 MBC 권혁용 기자의 강의는 11대의 UHD ENG카메라를 도입한 MBC의 카메라 테스트, 심의, 결정 과정을 담았다. 필드 테스트와 촬영본의 인제스트 과정 비교와 향후 서버 용량 증설에 대한 논의 등 단순히 카메라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방송사의 뉴스 시스템을 고려한 장비 도입 과정을 세세히 들을 수 있어 UHD취재장비에 고민하는 영상기자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사전에 실시한 <ENG 카메라의 미래에 관한 영상기자 설문조사>에 대한 발표자들의 설명은 현장영상기자들의 솔직한 반응을 담아 전달한 것이어서 공감이 갔다. 영상취재 장비로서 ENG카메라의 신뢰는 여전히 강하고 영상기자의 업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영상전문가인 영상기자의 정체성과 함께 UHD시대도 ENG카메라로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연수에서 나온 지식과 정보들, <현장기자가 발로 쓴 영상저널리즘>의 개정판으로 태어나길
MBN 이우진 기자의 <MNG의 이해와 전망

>은 취재현장의 풍경을 바꿔놓은 MNG의 역사부터 각 MNG별 비교와 운용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지역방송사에서 기회가 거의 없는 해외 MNG 운용에 대한 현장 노하우와 MNG의 사고 예방 요령을 배울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MNG로 인해 늘어나는 영상기자의 역할에 반해 동일한 운용인력이 투입되는 현실과 함께 현장 엔지니어의 부재는 MNG를 운용하는 영상기자에게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새로운 방향을 잡은 MNG 사들의 장비개발방향에 대한 강의와 소니, 파나소닉, 캐논 등 카메라 장비사의 UHD 개발방향에 대한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연수장 밖에 이번 연수에 참가한 장비사들이 직접 자사의 장비를 시연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대한 궁금증들을 묻고 장비와 관련한 심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난해 한국영상기자상 대상 수상자인

KCTV 김용민 기자가 직접 강의한 <<촬영바탕> 취재, 제작기>는 영상기자 주도로 기획, 취재, 촬영한 다큐멘터리의 제작 전반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수중드론과 슬라이더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수중영상 제작기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해녀에게 편하게 다가가 취재에 자연스럽게 응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2박3일간 짧고 긴 연수 기간 동안 현장에 돌아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이번 연수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는 책으로서 지속가능함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에서 나온 심도 있는 정보와 논의들이 연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협회차원에서 책으로 정리되어 <현장기자가 발로 쓴 영상저널리즘>의 개정판 출판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



2022 전국회원연수 참가기2

영상기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연수

KNN 안명환 기자

이번 전국회원연수는 장비의 발전사로 보는 영상기자의 과거, MNG, 4K 등 변화한 영상기자의 현재와 뉴미디어 클라우드 등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연수였다. <MNG장비의 발전>을 이야기한 이우진 MBN기자의 강의는 생각하를 많이 주었다. MNG는 영상기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가 되었다. 얼마 전 대우조선 파업 때도 전국의 언론사가 모여서 대부분이 생방송을 했지만, 중계자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 MNG를 활용해 생방송 연결을 했다. 연수에 참여한 영상기자들도 MNG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다. 간편화된 장비로 빠른 대처가 가능한 현장성에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한 현장진행, 촬영, 장비 관리까지 많은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LiveU와 TV-U의 대표적인 MNG장비사가 참여해 진행한 교육은 MNG장비의 숨겨진 장비 활용법을 소개하고 앞으로 발전할 방향을 소개했다. 두 회사 모두 지향하는 바는 장비

넘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분명 인력 감축, 운용 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방송 특히 뉴스에서 중요한 보안 등의 문제 등은 의문이 남는 부분이었다. 통신이나 IT 기술에 대한 기반 지식이 부족해 기술이 모든 부분을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영상기자도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런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 보인다.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의 저자직강, 영상기자 온라인 콘텐츠의 성공ABC

취재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들을 정리해서 영상기자협회가 발간한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의 집필자인 양재규 변호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분쟁 예시들을 강의했다. 보도의 가치를 높이고 언론사와 언론인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초상권이나 자료사용 등 조금은 귀찮고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MBC 온라인콘텐츠인 ‘14F’에서 기획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MBC 손재일 영상기자가 온라인 콘텐츠 성장 과정과 성공기를 강의했다. 몇 년 전 스프스 팀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

다. 뉴미디어팀으로 어느 정도 안착했지만, 수익성이나 미래 방향은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지금은 스프스는 자회사화하고 기업 IPO를 목표로 하고, 14F 연간 35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내는 부서가 되어있었다. 뉴미디어는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어느 정도 뉴미디어식 제작기법, 활용방식도 공식화되고 있다. 지역 언론사에도 장벽 없는 뉴미디어 세상을 새로운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상기자의 다양한 역할확장에 대한 고민, 싹터

통신 영상장비 미디어 모든 부분에서 기술발전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생각된다. 다르게 본다면 영상기자로서 표현하고 싶고 시도해보고 싶은 기법 장비들은 예전보다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일련의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영상기자의 역할도 영상취재에 한정 짓지 않고 기획, 연출, 사입 등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가지게 되었다.

“빠르고 정확한 재난 보도로 사람들에게 도움 주고 싶어”

[신입회원 인사] KBS 조원준 기자

영상기자가 되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입사 전에는 현장을 다니며 뉴스 영상을 촬영하는 게 전부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취재기자를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영상기자는 없었습니다. 뉴스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한 영상취재는 보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세심한 취재를 해야 하고, 중계와 같은 분야도 생각하며 뉴스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신속하며 동시에 보기 좋은 영상취재를 하는 것이 진짜 영상기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현장을 다녔지만, 얼마 전 했던 2차 장마 취재를 잊을 수 없습

니다. 저는 평소 재난 취재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번 호우 취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취재가 되었습니다. 수해 현장을 어떻게 전달해야 시청자들이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지, 피해 현황을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현장을 보여줘야 할지 등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해보고자 했습니다. 영상기로서 책임감도 더 많이 느낀 취재였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재난 분야에서 영상취재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에, 현장의 1보와 후속 취재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취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고, 혼돈 속에서 한줄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상취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협회란 개인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영상기자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우리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가장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힘든 점을 잘 듣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배들과 동기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후배들이 영상취재를 함께 불편함이 없도록 말입니다.

“기계적 모방 벗어나 현장의 얼굴 담는 용기 발휘할 것”

[신입회원 인사] MBC 김 준 형 기자

클로즈업은 용기다. 프레임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하나만으로 채우는 것은 선택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수습 시절 카메라엔 주제와 관계없는 클로즈업이 많았다. 그 클로즈업 수만큼 부정적인 피드백이 따랐다. 그렇게 점점 피사체에 다가갈 용기를 잃어갔다.

처음부터 겁쟁이는 아니었다. 이 길을 선택할 때만 해도 거침없었다. 영상으로 말하는 게 좋아서 전공이 아닌 길을 얻으로 삼았다. 독학으로 영상을 배웠다. 카메라와 함께 태극, 히말라야 등 세상을 돌며 다양한 삶과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며 세상을 담은 영상기자를 선택했다. 카메라 든 모험가를 상상했다. 근대 실상은 현장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고라니 한 마리였다.

고라니는 타사 동기들이 불여준 별명이었다. 현장에 휩쓸려 이러저리 뛰는 꼴이 남아있었다. 초식동물인 고라니는 긴장한다. 육식동물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예정과 다른 타이밍에 등장한 유명인사, 갑자기 터지는 구호,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자체가 나에게 육식동물이었다. 손이 느린 나를 기다려주는 현장은 없었다. 더는 혼란에 빠지기 싫었다. 그래서 비슷한 현장을 다녀온 선배들의 영상을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했다.

“준형이는 사람들 표정이 안 궁금한가 봐?” 집회 취재를 본 선배가 말했다.

좌측에서 폴샷 찍고 우측에서 미디엄샷. 내가 한 건 기계적인 모방에 불과했다. 무엇이 중요한지 관찰하고 고민하는 것은 시간이 들었다. 여러 컷을 담을 시간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내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담은 클로즈업이 버려진다면? 내 판단에 자신이 없었다. 결국 현장의 얼굴을 외면했다. 영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겠다는 꿈은 ENG를 잡기 전보다 멀게 느껴졌다.

“영상취재에 필요한 게 다 있더라. 고생했어”

아직 일이 어려운 9개월 차 신입은 갑작스러운 칭찬에 어리둥절했다. 선배가 말한 ‘영상취재에 필요한 것’은 뭘까? 이전 리포트에선 뭐가 부족했을까?

8월 초, 중부지방이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았다. 경기 남부의 한 주택가는 토사로 배수관이 막혀 도로가 온통 물바다였다. 침수된 차, 솟아오른 물로 깨진 아스팔트. 아직 현상이 두 곳 더 남아 카메라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송사 카메라를 발견한 주민들은 놔주지 않았다. 피해를 호소했다. 추가취재가 필요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은 다 그런 얼굴이었다. 용기를 내어 시민들을 클로즈업했다. 부서진 도로를 위태롭게 걷는 가족, 아이를 안고 시름에 잠긴 어머니. 물난리만이 뉴스가 아니었다.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까지 수해 현장이었다.

현장의 얼굴을 담기까지 반년이 걸렸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내 프레임에 들어왔다. 화면 구성도, 시간도 한정된 영상취재에서 클로즈업은 용기다. 여전히 현장에서 변수가 두려운 고라니지만, 나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추상적인 꿈은 조금씩 모양을 갖춰간다. 용기가 된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고 집중하자. 주춤했던 발과 줄을 앞으로 향한다.

“고민과 반성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신입회원 인사] 원주MBC 노 윤 상 기자

영상기자를 꿈꾸던 취업준비생 시절 저는 늘 ‘고민’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스스로 밝혀왔습니다. 이는 매일 새로운 고민으로 기자로서 성장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체되지 않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원주 MBC에서 영상기자로 첫 발을 댄 이후 새로운 고민에 더해 반성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매일의 현장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하루 끝에는 아쉬움으로 짙어진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모르는 게 많은 새내기 영상기자이지만 시간의 반성과 고민은 저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주었고, 그 확신으로 오늘도 여전히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배들의 조언은 가치관을 잡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습 시절 현장에서 한 발 더 움직이라는 선배의 조

언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던 부족한 시야를 넓혀 현장을 더욱 입체감 있고 의미 있게 촬영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ENG를 통해 바라보는 한 컷 한 컷에 분명한 의미를 담아내라는 조언을 통해 매일의 현장 속 최선의 한 컷을 위한 고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하며 한 컷에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담아낼 때 뉴스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체감했고, 한 컷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파생되는 파급력은 제 스스로 현장을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8개월 차 새내기 영상기자로서 ENG의 무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의 과정에 더해질 많은 선배들이 먼저 걸어간 길과 조언, 협회에서 얻어갈 좋은 양분들로 건강하게 성장하겠습니다.



“관찰자에서 취재의 주체로 바뀐 책임감 느껴”

[신입회원 인사] KCTV 제주방송 박 주 혁 기자

저는 오디오맨으로 영상취재란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던 시절 그저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입니다. 처음 오디오맨을 시작한 JIBS 제주방송에서부터 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SBS 오디오맨 시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를 느꼈던 때의 제주MBC 오디오맨 경험까지 약 4년간 오디오맨을 경험하며 수많은 선배들과 함께 다양한 현장을 누볐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고 오디오맨이라는 위치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에 실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미치도록 즐거워 영상기자에 대한 꿈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KCTV 제주방송에서 영상기자란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 이름이 적힌 ENG 카메라를 받아 들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취재현장에서 주도적인 입장으로 제 생각을 펼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책임감이라는 세 글자가 무겁게 가슴을 누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한 컷, 한 컷 그리고 편집하여 보도되는 영상이 시청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영상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된 새내기로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

달할지 더욱 고민하고 생각하려 노력하겠습니다.

ENG 카메라를 든지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든 초보 영상기자로서 아직은 모든 것이 어렵지만 합니다. 촬영을 하며 정확한 구도와 노출인지, 또 편집을 하며 영상구성이 형성하지는 않은지 같은 기술적인 면부터 시청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인지에 대한 내용적인 면까지 어려움투성입니다. 가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을 때면 선배님들의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처음에는 다 그렇다. 하다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공부하고 영상으로서 뉴스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현장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바다 이송 취재였습니다. 수족관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였던 ‘비봉이’가 바다로 방류되는 첫 단계를 취재하여 시청자에게 잘 전달하고 싶었지만 ‘비봉이’가 수족관에서부터의 스트레스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리한 취재 경쟁 때문에 이제 바다로 돌아가려 하는 돌고래의 상태가 악화되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장에서 풀단을 구성하고 최대한 돌고래에게 접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취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풀단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촬영을 해 공유하



여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풀단이라는 촬영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도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비봉이’에게도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던 촬영이었다고 생각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도 항상 열정적으로 취재에 임하는 선배님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언젠가 나도 후배들에게 열정적이고 멋져 보이는 영상기자가 되어야겠다고.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정진하고 공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취재현장을 누비는 것이 즐거워 선택한 영상기자라는 직업. 더욱 책임감을 갖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서 현장을 전달하는 영상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 피해 막을 수 있도록 깊이있게 취재할 것”

[신입회원 인사] KNN 박 은 성 기자

영상기자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상취재를 하고, 편집을 통해 하나의 리포트를 만든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입사 후에 경험한 영상기자는 그러한 매력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종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할 때의 책임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고, 직접 편집을 하고 리포트를 제작하면서 영상매체의 파급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숭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산불이 크게 번졌던 현장, 바닷가에서 이완류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한 훈련 등 제가 영상취재한 내용들은 시청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준다면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만큼 영상기자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커졌지만 성취감 또한 컸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 전달에 신경을 쓰고 책임감 있게 영상취재에 임해야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기자 선배

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옳은 길을 가는 영상기자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밀양 산불화재는 매우 큰 피해를 입히고 진화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취재 과정에서 숭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나무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공간이 오히려 바람이 도는 공간을 만들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더욱 크게 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활엽수림이 우거져있었다면 오히려 불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숭가꾸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처럼 피해가 큰 대형 산불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직접 산을 돌아다니보니 아직도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는 처참했던 산불의 현상이 어느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현장에서 영상취재를 진행하겠지만 원인을 파악해서 앞으로 일어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영상취재



서도 깊게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라는 협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상기자의 권리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NY



PXW-Z750



PXW-Z280

표준, UHD 시대에도 다시 한번

Sony Korea Corp. Professional Solutions Division Company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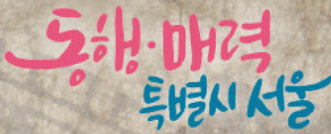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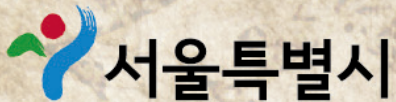
서울 경기 (주)지엠에스 : 02-2165-8777 (주)피에스콤 : 02-3275-1175 (주)엠에프솔루션 : 031-966-1148 (주)포비디지널 : 02-3272-8084 (주)제이엠시스 : 02-707-1982

부산 (주)아이엠비 솔루션 : 051-717-3412 (주)수창미디어 : 062-654-2500

■ 기술지원 : (국번없이) 1588-7313 ■ A/S 콜센터 : (서울) 02-782-3560 (부산) 051-860-7537

https://www.facebook.com/sonykorea.professional

https://pro.sony.com



연사 복원의 궤를



창경궁-종묘 연결

복원 사업

일제가 도로를 내며 끊긴 창경궁과 종묘,
90년 만에 서울시가 이었습니다



울곡로 터널 위, 산책길 조성
옛 담장과 숲 복원은 물론
시민의 휴식과 산책을 위한
길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녹지문화축**의 시작점
창덕궁~창경궁~종묘~남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녹지문화축의 시작점!
이제 더 푸른 미래로 나아갑니다.